

- 대(代)를 통해 이어지는 청렴 이야기 -
<제도의 변화가 일으키는 청렴 문화>

- 어머니의 청렴 이야기, ‘청렴도 창의력이 필요하다?’ -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2019년 2월 22일 J중학교 강당, 어머니의 명예 퇴임식에 학생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5년간 교편을 잡으셨던 어머니는 수많은 학생의 스승이자, 같은 공직자로서 배울 점이 많은 훌륭한 스승이셨습니다. 물론 학교라는 조직과 제가 몸담고 있는 공공기관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어머니가 말씀해주셨던 조직에 관한 에피소드, 인간관계 노하우 등은 제가 공직자로서 5년 동안 무탈하게 근무할 수 있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날 저는 선생님으로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세월이라는 게 생각보다 참 짧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에게 있어서 35년간의 교직 생활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어머니가 교단에 처음으로 서셨던 1980년도는 ‘촌지’가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명절이나 스승의 날은 물론 매 학기 초에는 많은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성의’를 표시하곤 했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의 과목은 체육이라 담임을 맡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담임을 맡게 되었을 때 학부모들이 촌지를 주려는 시도가 많이 들어와 그것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이 촌지 받는 것이 암묵적으로 허용되던 시대였기에 ‘저는 이런 것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강하게 거절하면 오히려 다른 동료, 선배 교사들에게 눈치를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체육부장을 맡으셨을 때에는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체육부를 운영하다 보면 체육용품(체육복, 배구공, 배드민턴 채 등)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상급자들이 직접적으로 업체 사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다든지, 아니면 은근하게 “어이 장 부장, 요새 X 브랜드에서 쓸 만한 골프채가 나왔던데?”라는 식으로 어머니에게 우회적 압박을 주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상황 때마다 몇 날 며칠을 잠을 뒤척이셨다고 합니다. 처음 몇 번은 알아듣지 못한 척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지만 반복되다 보면 거절하기 힘

듣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적절한 명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정말 거절하는 데도 창의력이 필요했단다.”

퇴임식 후 어머니께서 점심 식사 중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하셨지만, 저는 쓸쓸한 마음이 들 뿐이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청렴하고자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창의력(?)이 필요했다니…….’

- 아들의 청렴 이야기, ‘난 분명 옳은 일을 한 건데.’ -

저는 평생능력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자격시험, 외국인고용지원, 해외 취업 및 숙련기술장려 등 기업과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단사업 중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국가자격시험사업(기능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4년 동안 자격시험부에서 실기시험위원으로 출장 나가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점을 이 기회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수험생들은 1차 시험인 필기시험과 2차(최종)시험인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시험의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름부터 국가 ‘기술’ 자격이고, ‘최종’ 시험이라는 의미가 주는 묵직함 때문에 많은 수험자들은 실기시험을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 화룡점정은 바로 실기시험 채점입니다.

‘전기기능사’ 같은 경우는 수험자들을 최종 퇴실시키기 전 여러 가지 채점 요소 등을 일일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수험자들을 시험장 밖에서 대기시킨 후 한 명씩 호명하여 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퇴실시킨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험이 종료된 후, 감독위원들이 특정 수험자를 채점하는 동안 다른 수험자들이 본인들의 작업대로 가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고, 이를 제지하느라 채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점을 할 때는 작품의 ‘동작 여부’가 채점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작품의 치수, 배열 등 전체적인 완성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작품 자체가 동작하지 않으면 불합격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채점 결과에 바로 승복하지만, 동작이 안 되는 수험생들은 씩씩대면서 이게 왜 작동이 안 되는지 격렬하게 항의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나중에는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는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우리 시험위원들은 젊은 수험생들이라면 ‘아쉽지만 기회가 많다’ 라고 그나마 수월하게 설득했지만, 상대적으로 연세가 지긋하신 수험생들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약 2년 전 제가 출장 갔었던 ○○시험장에서는 한 어르신께서 동작 채점 중 작동이 되지 않자, ‘나는 이번 시험에도 떨어지면 경비실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라며 대뜸 얼음이 팡팡 얼어 있는 냉커피 한 통을 가방 속에서 꺼내시면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프고 참으로 죄송스러웠지만, 연민으로 인해 시험위원으로서 원칙을 어길 수는 없었기에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백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들만 눈감으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계신 시험위원분들은 청렴 서약을 하시고 별개의 기관에서 정식으로 위촉되신 분들이라 만약 오늘 묵인하게 될 경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당연히 자격 취소가 되시구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절을 한 날에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난 분명 옳은 일을 한 건데…….’

- 제도가 청렴을 만든다 -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제도적인 명분’ 이 있었다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청탁금지법이 어머니 초임 시절부터 시행되었다라면, 학부모의 촌지 청탁이나, 상급자의 리베이트 시도에 어머니의 창의력이 필요했을까요?

작년 3월 29일, 저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 공단에도 청탁금지법과 같은 제도적인 명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작업형 실기시험 일부 종목에 대해 채점 과정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전기기능사 같은 경

우는 채점 과정 입회를 원하는 수험자들이 동시에 참관한 상태로 감독위원들과 동작 채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채점 과정을 참관한다면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수험자 입장에서 선뜻 봐달라는 시도 자체가 부담스럽고, 공단 측은 이 제도를 빌어 좀 더 수월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제도가 생기고 난 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위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거절은 고사하고 수험생들로부터 봐달라는 부탁 자체를 한 번도 받아보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험자 만족도 분석 결과, 75.9%에 달하는 수험생이 만족했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수험자들이 채점 과정을 투명하게 참관하므로 잇을 만하면 제기되었던 감독위원과 특정 수험자 간의 유착 의혹까지 차단되었던 것입니다. 즉, 제도개선을 통해 내·외부 고객만족도와 청렴도를 한 번에 올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청렴을 단순히 금전적인 것과 한정 지어 생각합니다만 요즘 우리 시대의 ‘진정한 청렴의 의미’는 금전적인 것과 관련된 반부패는 물론, 본인의 임무 및 의무에 소홀하지 않고 충실히 하는 것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은 본인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청렴하게 근무하려고 하는데 조직의 제도가 적합하지 않다면, 청렴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싹틀 수 있을까요? 청렴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는 분명 중요하지만, ‘개인’은 어떻게든지 시험 받게 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청렴은 항상 위태롭기 마련입니다.

저는 청렴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과 조직문화가 개인의 노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인사 관리 이론에서 ‘좋은 시스템에서 좋은 조직원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청렴도 그렇습니다. ‘청렴한 제도’에서 나오는 ‘청렴한 개인’이 만드는 사회에는 부당함을 거절하는 데 ‘창의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렴이 제도화되고 우리 사회에 청렴이 당연한 그 날이 오면 저는 제 미래의 퇴임식에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 하겠지요

“너희 할머니 때는 말이야, 거절할 때도 창의력이 필요했단다. 하하!”